
종교의 다양성과 종교 간 공존

I. 종교란 무엇인가?

II.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III. 종교적 근본주의

IV. 종교 간 평화공존을 위한 자세

학습목표

1. 종교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2. 세계의 종교현황에 대해 이해한다.
3.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4. 종교 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I. 종교란 무엇인가?

- 거의 모든 인류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들이 존재
- 종교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
- 오늘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출현하면서 나타나는 갈등 중에 종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현저
 - 종교적 정체성과 신념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대두
- 종교 간의 분쟁은 잠재적으로 문화다양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의 문제는 공존과 화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

I.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 성립의 기본 요소

1)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나 대상

- 불안과 두려움, 궁극적 한계로부터 탈피를 도와줄 것으로 믿어지는 경외적 존재나 대상
- 신 또는 신성한 힘, 부처/공자 같은 대선각자나 선생 등으로 구체화

2) 상징을 중심으로 한 의례나 의식

- 신앙의 대상을 종교적으로 상징화하여 수행하는 특정 의례나 의식
- 기도, 낭송, 노래, 특정 음식 먹기/삼가기, 특정 기념일 준수 등

3) 신앙공동체

- 교단/종파 형성, 교리 교육/학습, 그 교리에 입각한 생활유지공동체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 미국 유명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The Pew Research Center)'가 2017년 발표한 '세계 종교 인구 지형 변화(The Changing Global Religious Landscape)'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세계인구 약 73억 명 중 약 62억 명이 종교 인구
- 기독교 31.2%, 무슬림 24.1%, 힌두교 15.1%, 불교 6.9%를 각각 차지하고, 무교는 16%인 것으로 집계
- 종교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12억 명 중 대부분은 아시아에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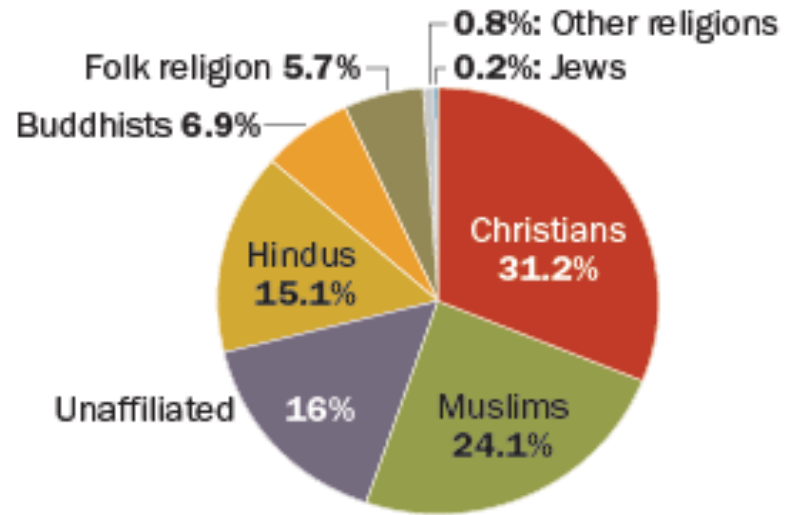
그렇다면 세계 주요 종교의 개괄적인 현황/특징과 한국의 종교현황/갈등은?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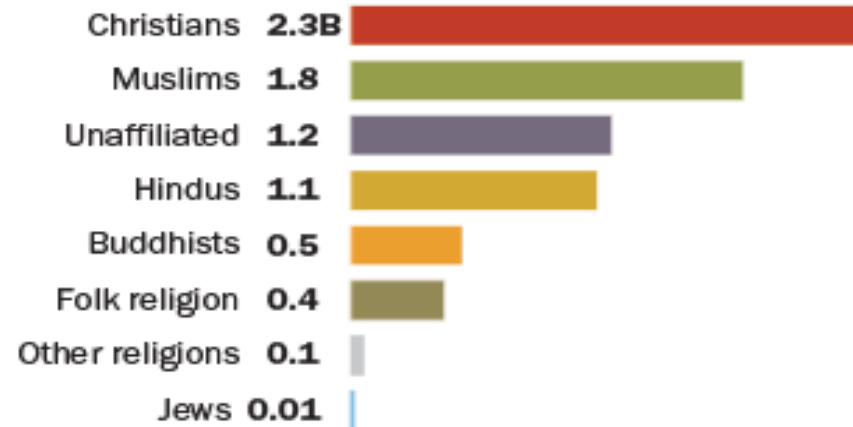
2015년 세계 종교 인구

Christians are the largest religious group in 2015

% of world population



Number of people in 2015, in billions



Source: Pew Research Center demographic projections.
See Methodology for details.
"The Changing Global Religious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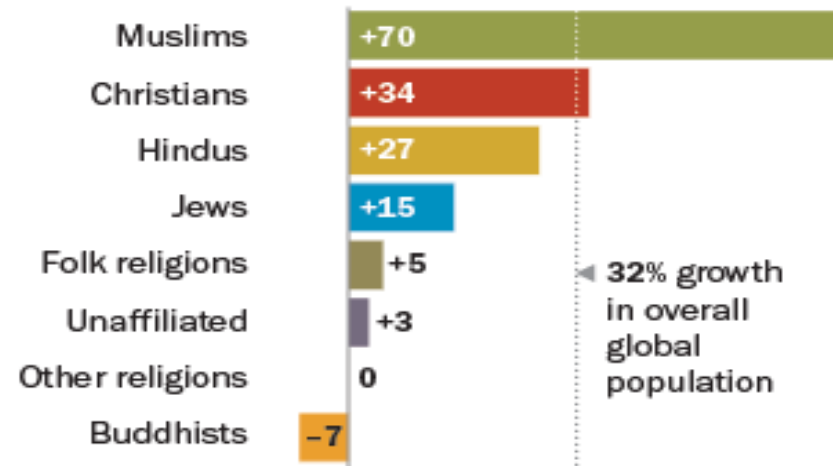
PEW RESEARCH CENTER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종교 인구 성장 추세 2015-2060

Muslims projected to be fastest-growing major religious group

Estimated percent change in population size, 2015-2060



32% growth in overall global population

Source: Pew Research Center demographic projections. See Methodology for details.

"The Changing Global Religious Landscape"

PEW RESEARCH CENTER

- 단일 종교로는 이슬람 신도가 가장 많음, 평균 연령도 20대 초반으로 매우 낮음
- 무교로 분류된 12억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거주
- 2060년경 기독교와 이슬람수가 같아짐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1. 힌두교

1) 개요

- 인도에서 발생하여 가장 오래된(B.C. 3000~2000년경) 종교
- 지금 인더스강 유역을 옛날에는 산스크리트어로 신두(Sindhu)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힌두, 인디아 등의 말이 파생
- 타종교와 달리 창시자가 없고 종교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지님
- 윤회라는 고통의 세계로부터 구제 강조가 주요 특징(윤회설)

2) 현황

- 교도는 인도인 80%이상과 네팔인 거의 전부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북아메리카 등 인도인 거주지역에 주로 분포
- 전 세계적으로 약 11억 명이 힌두교인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 교리상의 유연성을 통해 타종교와 관점들을 배척하지 않고 용인하는 측면이 높음: 이슬람교나 기독교와 달리 타인들을 진정한 힌두교도로 개종시키려 하지 않음
- 인도는 힌두교 국가이면서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이슬람교인이 많은 나라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 왜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 소를 신성시 할까?

- 인도의 헌법은 소의 도살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암소를 돌보거나 암소 앞에 서 있거나 암소를 보기만 해도 행운을 얻게 되며 악을 쫓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믿음
- 힌두교의 많은 신 중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운송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이 타고 다니는 신성한 가축을 사람이 먹을 수 없다 하여 소고기를 먹지 않는 교리가 생김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2. 불교

1) 개요

- B.C. 6세기경 네팔 남부의 작은 힌두교 왕국의 왕자였던 고타마 싯다르타 (붓다, 깨우친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
- 29세에 출가하여 고행을 시작한 고타마 싯다르타가 35세에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얻은 깨달음을 궁극적 이상으로 삼는 종교
- 욕망 자제 및 바른 행위와 함께 부질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수양 (명상)을 통해 정신적 성취를 이루는 해탈을 강조하는 종교
- 석가모니가 깨우친 뒤, 80세에 입적할 때까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말한 교설이 주요내용
- 기존 힌두교의 의례들과 카스트제도의 권위들을 부정: 불교의 얻은 종교 의식은 카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강한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던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힌두 세계 내에서 토착화하는데 실패

- 이슬람교도의 침입으로 인도의 불교는 급속히 쇠락하였으며, 붓다의 입멸 후 불교는 인도가 아니라 각 나라로 또는 각 분파로 분리 발전
- 부처가 사후에 이상화되며 신적인 존재로 비취지는 오해도 일어남

2) 현황

- 불교는 현재 대승불교, 소승불교, 티베트불교가 있음
- 세계의 불교도 수는 약 5억 명, 90%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거주, 나머지는 아메리카와 유럽 등에 분포
- 불교는 타이, 미얀마, 스리랑카,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 불교의 채식

- 고기는 병이 든 비구에 한해서만 삼종정육(三種淨肉)·오종정육(五種淨肉)·구종정육(九種淨肉)등을 허락
- 삼종정육은 자신을 위해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은 짐승의 고기, 남으로 부터 그런 사실을 전해 듣지 않은 고기, 자신을 위해 살생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지 않는 고기를 말함
- 오종정육은 삼종정육 외에 수명이 다해 자연사한 조수(鳥獸)의 고기나 맹수 또는 조수가 먹다 남긴 고기를 뜻함
- 구종정육은 오종정육 외에 자신을 위해서 죽이지 않은 고기나 자연사한 지 여러 날이 돼 말라붙은 고기, 우연히 먹은 고기,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고기를 말함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3. 유교

- 전통중국사회를 다스리던 지배집단의 문화적 기초가 되는 사상/종교
- B.C. 6세기 부처와 동시대인이었던 중국의 대사상가인 공자를 통해 크게 부각되어 전개된 사상/종교
- 공자는 중동 지역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대중의 스승으로서 신이 아닌 현자 중의 현자로 공경 받은 인물
- 인(仁)/예덕(禮德)을 정치와 윤리의 도덕 이상으로 하는 도덕주의를 설파하며 덕치/무위이치의 정치와 사회질서를 강조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4. 유대교

1) 개요

- B.C. 1000년경부터 시작된 유대민족의 종교
- 서구 기성 종교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종교
- 모세의 율법(십계)을 기초로 유일신이며 절대자인 여호와(Jehovah)를 신봉, 메시아(구세주)가 도래하는 지상천국의 건설을 믿으며, 선민의식을 강조
- '여호와가 명하는 율법을 지키면, 여호와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며 지켜준다'고 언약했다 확신하며 자신들의 신앙만이 유일하게 참되다고 인식하는 종교
- 경전은 구약성서와 탈무드
- 오랜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민족의식을 결속해오며 이스라엘 건국(1948)의 원동력을 제공했으나 중동분쟁의 주요인이 되는 종교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2) 현황

- 오랜 세월 동안 탄압받고 급기야는 나치 수용소에서 600백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도 함
- 오늘날 유대인 수는 1,400만 명으로 북아메리카, 이스라엘, 러시아와 유럽에 거주
- 미국의 경우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와 상관없이 사는 이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5. 기독교

1) 개요

-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토대로 하는 종교
- 예수는 유대인이었으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
- 예수의 삶/가르침/죽음/부활에 기초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를 메시아(구세주)로 믿는 종교
- '신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교의 배타적 구원론을 넘어, '누구든 신/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면 원죄로부터 구원(영생)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
-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16세기 독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로마가톨릭이 구교와 신교로 각각 분리, 신교내에서도 다양한 종파들이 분리/존재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2) 현황

- 기독교는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 2015년 신도수가 세계인구의 1/3에 23억 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가장 많은 인구 보유
- 기독교 내에는 수많은 종파들이 존재하는데, 주된 종파로는 로마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정교가 있음
- 현재 서양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급속한 감소세, 교회 출석률이 20% 미만인 유럽국가도 있고, 신자가 없어 성당/교회가 클럽이나 카페나 식당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존재
- 반면 아시아/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증가세, 한국은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의 기적을 이룬 나라, 미국 주요 신학교는 한국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곤란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6. 이슬람교

1) 개요

- 이슬람교는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하는 유일신(알라) 종교로 전세계 인구의 약 1/4이상을 차지
- 610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근교의 히라 동굴에서 참선을 하던 중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알라'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
- 경전은 유일신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20년 간 계시한 내용을 담은 '꾸란/코란'
- '이슬람'은 알라의 뜻에 '순종'을, '무슬림'은 '순종하는 사람'을, '꾸란'은 '읽을거리'를 의미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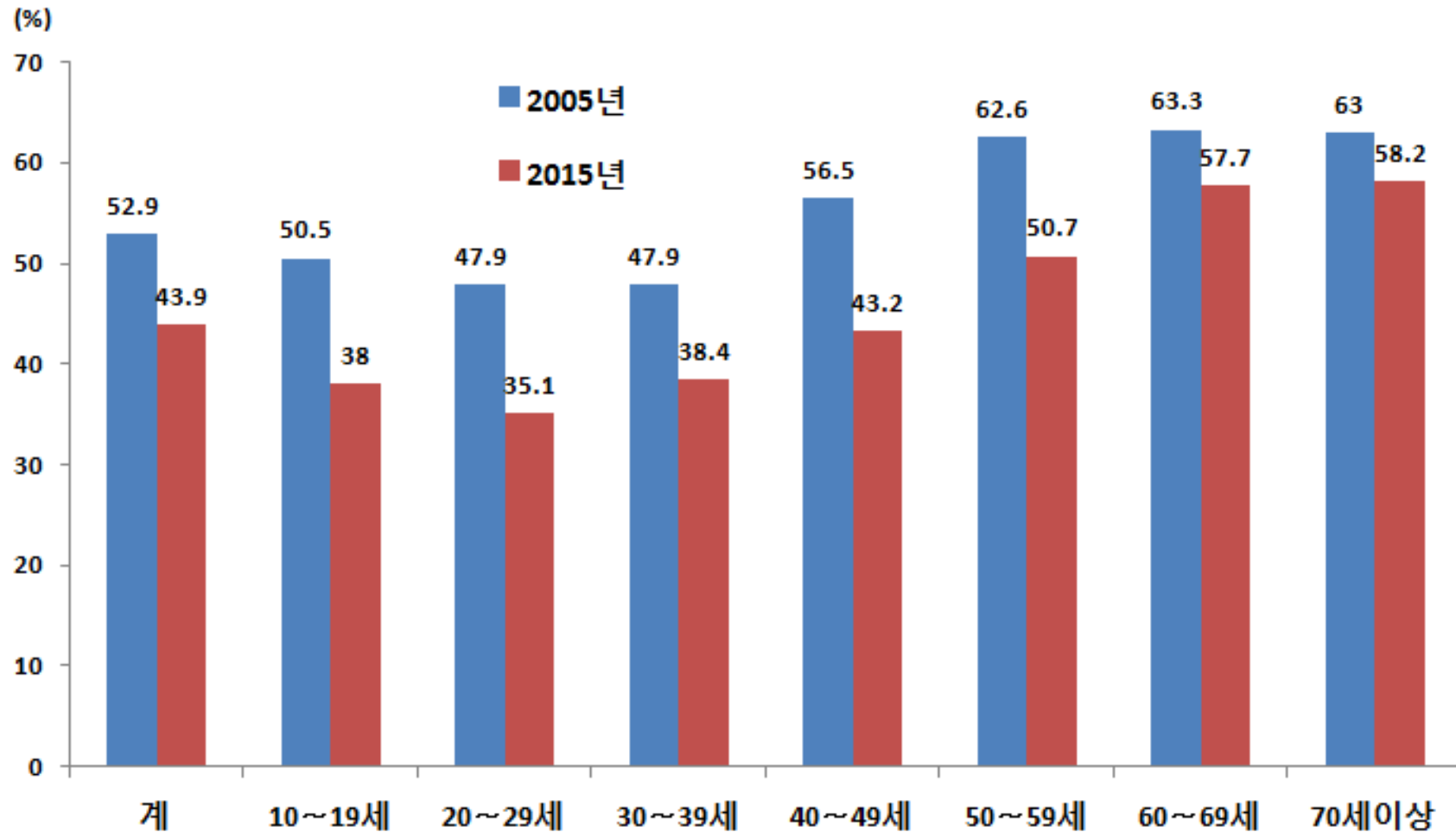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2) 주요내용/현황

- 유일신 알라를 위해 선행하면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
- '유일신 알라 앞에서는 만인(아녀자/빈민/노인/장애인/노예...)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통해 많은 신도들을 만들고 세력을 확장하여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통일하고 정교일치(政敎一致)의 질서를 정립
- 그러나 무함마드 사후 후계자들의 계승권 분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대립
- 2015년 신도수는 18억 정도, 이 중 90%가 수니파이고, 나머지는 시아파/수피파 등
- 지역적으로는 북아프리카/동아프리카/중동/파키스탄에 집중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한국의 연령별 종교 인구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한국의 종교 현황

구분	인구			구성비		
	1995년	2005년	2015년	1995년	2005년	2015년
계	43,834	46,352	49,052	100.0	100.0	100.0
종교있음	22,100	24,526	21,554	50.4	52.9	43.9
불교	10,154	10,588	7,619	23.2	22.8	15.5
기독교(개신교)	8,505	8,446	9,676	19.4	18.2	19.7
기독교(천주교)	2,885	5,015	3,890	6.6	10.8	7.9
원불교	86	129	84	0.2	0.3	0.2
유교	210	104	76	0.5	0.2	0.2
천도교	28	45	66	0.1	0.1	0.1
대종교	7	4	3	0.0	0.0	0.0
기타	225	196	139	0.5	0.4	0.3
종교없음	21,735	21,826	27,499	49.6	47.1	56.1

주) 특별조사구 제외

인구: 천 명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7. 한국의 종교현황 및 갈등 문제

- 한국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평화 공존해온 모범적인 사례의 사회, 그러나 다른 갈등이나 대립에 비해 정도는 약했지만 다양한 종교갈등이 발생해온 사회
- 역사적으로 신분해방을 위한 종교운동이나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땅밟기', '통성' 등으로 대표되는 종교 갈등이 표출
- 2015년 기준 한국인의 종교현황은 무교 56.1%, 기독교 27.6%, 불교 15.5%, 토속종교 0.4% 등으로 집계
- 아주 오랜 기간, 타국에서는 보기가 힘들었던 다원주의적 종교문화를 형성해온 한국사회도 종교 간 평화공존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위기국면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전체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함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 즉, 독단성/배타성/공격성이 강한 종교나 종교적 신념의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고, 정치와 특정 종교가 밀착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종교들 간 갈등과 충돌을 예방하는 신중한 노력이 필요
- 종교적 평화공존의 지속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상황에 봉착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원룸 건물인 줄 알았더니,,, 이슬람 사원이었어요”

경북대 서문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축 2014년부터 종교행사 진행

“모스크는 중동에서나 보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옆집에도 모스크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추산 기관마다 다르지만 국내에는 한국인 3만 5000명, 외국인 10만명 등 이슬람 신자 약 15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슬람 사원의 경우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모스크 17곳, 무살라 123곳이 존재한다. 기도실인 무살라까지 포함해 이슬람 사원 최대 200곳이 국내에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대학교 서문 주택가에 모스크(이슬람 사원) 건립이 예고돼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13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현로3길 주택가 4필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가 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약 6년 전부터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단층 한옥과 마당에서, 많은 때는 80명가량 모여 종교의식을 진행했다.

구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달리 방도가 없지만, 일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건축주 측에 공사 중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대구 북구 건축과 관계자는 “불허가 처분을 해도 행정심판을 하면 100% 지는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종교시설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민 김모(67) 씨는 “종교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다”며 “좁은 마당에 많을 땐 80명씩 하루 다섯 번 담벼락에 대고 절을 한다. 상의도 없이 규모를 더 키운다니...”라고 울먹였다.

한편 주민들은 오는 15일 구청에 건축 취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단체 “경북대 민교협, 매국노질 멈춰라”

국민주권행동 등 43개 단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성구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대현동 주택가 이슬람사원이 웬 말이나"며 "재판부는 공정하게 재판하고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들은 매국노질 멈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3일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청와대 청원을 삭제하라는 반민주적 요구를 담고 있는 성명서 참여 단체에 이슬람사원인 다룸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가 포함, 충격이다"며 "이슬람사원이 대놓고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민변 등이 동참하고 있어 배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현동 주택가에 주민동의 없이 몰래 이슬람사원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과 무슬림들은 즉각 대현동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마을을 떠나라"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일방적으로 무슬림 편을 들고 있는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은 즉각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를 배척하는 이슬람을 무조건 지지하고 국민인 대현동 주민들을 향해 혐오 세력이라고 매도한 불순 매국 시민단체들은 즉각 대현동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가짜 인권 앞세우며 이슬람 국가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눈감고 무슬림들의 여성 인권탄압, 이교도 생명 살상 만행 외면하면서 인권 타령하고 혐오 세력 운운하는 '인권팔이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문제에 개입 말고 물러나라"고 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뉴시스 2021년 9월 29일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공사중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A씨 등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북구청장)측 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했던 사원 건축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 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현동 4필지에 이슬람 종교집회장을 증축하고, 기존 단독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해 12월부터 착공 했으나 지난해 2월 16일 대현동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북구청에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북구청은 주민 정서불안과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건축주 A씨 등은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청장은 원고 A씨 등에게 공사중지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에 따른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또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에게는 이들이 설치한 반대 피켓과 현수막이 이슬람 공포증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고 철거를 권고하기도 했다.

Ⅱ. 세계의 주요 종교현황과 한국의 종교갈등

대법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 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8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하고 건축주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을 추진 중이던 이슬람 사원은 일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북구청이 사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건축주들은 이 일대에 245.14㎡(약 74.3평) 2층 건물 규모로 사원 건립을 계획하고 북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자 북구청은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라며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 제거를 권고한 바 있다.

한겨레 2022년 9월 20일

Ⅲ. 종교적 근본주의

※ 근본주의

- 일련의 원칙이나 신념들을 엄격히 고수하는 태도를 의미
- 근원적이거나 원초적인 토대에서 인간과 사회 문제에 접근하고 해석하려는 것: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고 혼란해지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망각했거나 그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봄
- 현실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범이나 내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
- 근원이나 본성으로 돌아가 자신을 다른 것과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게 됨: 인종, 종교, 지역, 종파, 언어 등의 차이에 따라 형성되고 강화됨
- 근본주의가 발흥할 때 다른 것들이 공존하는 것은 어렵고 충돌 가능성 존재 → 극단주의와 맞닿아 있음

Ⅲ. 종교적 근본주의

1. 종교적 근본주의

- 근본주의라는 개념은 종교 영역에서 가장 먼저 사용
- 1920년 미국의 전투적 복음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고안됨
- 극단적 종교집단들이 정치적 행동과 결합하면 보다 잔혹한 비극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음: 역사상 가장 오랜/폭력적 이데올로기는 종교
- '종교적 근본주의'는 기본 경전이나 교본을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집단의 태도를 의미
- 경전의 액면 그대로의 해석과 그러한 해석에서 비롯되는 그 교의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삶의 모든 측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수반
-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오직 하나의 세계관만이 옳고, 그게 바로 자신들의 세계관이라고 믿으며 극단주의에 매몰

Ⅲ. 종교적 근본주의

1) 이슬람 근본주의

- 사회 전영역에서 꾸란의 가르침을 실현해 정교일치의 순수 이슬람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종교운동
- 19세기 후반부터 서구문화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저지가 힘들어진 이슬람 세계가 그 본연의 순수성과 힘을 되찾기 위해 이런 운동을 전개
- 이슬람 본연의 신앙/관행들이 가진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구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맞대응을 주장/실천하는 운동
- 20세기에는 이슬람 국가의 집권층들이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과 손잡고 이슬람 개혁운동을 탄압하면서 '반외세'가 이슬람 근본주의의 핵심기조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서방세계와 근본주의 세력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Ⅲ. 종교적 근본주의

2) 기독교 근본주의

- 성경은 모든 인간사의 잣대가 되는 무오류의 완전한 신의 진리가 표현된 책, 문자 그대로의 해석/실천을 주장하는 종교운동
- 축자영감설은 성경의 글자/구절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틀림이 없으며, 역사와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기독교 근본주의적 입장
-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근대화로 인한 전통사회 질서의 변화를 도덕적 위기로 간주하고 정면으로 반대

Ⅲ. 종교적 근본주의

2.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점

- 타종교/무신론자들에 대한 불관용적 태도도 일관
- 자기 종교 내에서도 경전의 해석과 신앙적 태도의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음:
소통과 이해가 요구되는 다양화 사회에서 종교적 근본주의는 매우 위험
-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항상 폭력과 연결될 가능성 높음
→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인권을 억압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잔혹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자주 목격
- 이슬람 근본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는 레바논,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들에서 최근 수 년간 이슬람 집단과 기독교 집단 간의 무력충돌의 주 요인

IV. 종교 간 평화공존 모색의 기본 자세

- 사회 내 문화다양성의 증가와 함께 종교다양성도 증가, 그러나 현 상황에서 종교는 사회통합의 도구/기제가 아닌 갈등의 불씨가 될 위험성이 높음
- 서유럽 기독교국가들에서는 이슬람권 이주민들의 증가로, 한국사회에서도 근본주의의 잔존/표출과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한 종교적 갈등 사례들이 적지 않게 표출
- 나라마다 종교 간 화합문제가 주요과제로 급부상하며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그러나 종교 간 화해/평화공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타종교를 알고 이해하려는 태도
- 타종교에 대한 이해는 만남/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종교 간 대화이고, 종교 간 대화는 상대방과의 다름/차이를 진정으로 이해/존중하는 노력

IV. 종교 간 평화공존 모색의 기본 자세

➤ 세계적인 종교학자 라이문도 파니카

“타종교와의 만남이 없이는 나의 종교 진리에 대한 이해 역시 불완전해진다는 것을 자각하는 지점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시작된다.”

→ 종교 간의 화해나 공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타종교를 알고 이해하려는 태도

➤ 신학자 한스 쿡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평화가 있을 수 없다.”

→ 타종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만남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종교문제와 관련한 현 시대상황은 자기종교/세계관에 헌신하면서도 그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한 자기비판/성찰과 함께 타종교/세계관에서 배울 수 있는 여유와, 근본주의/절대주의와 같은 자기종교/세계관 중심의 극단적 배타성 속에 갇히지 않는 열린 종교인/사회인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생각해 봅시다.

1. 종교간 대화는 가능할까요? 대화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2. 일부 가정에서 종교적 차이 때문에 제사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종교재단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종교수업 혹은 채플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의 침해라는 반발도 강하다. 각자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4. 이슬람 풍자 만평을 그려왔던 프랑스의 '샤를리 에브도'라는 신문사에 총격 테러가 발생하여 1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러와 폭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모독도 비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냐 종교 모독이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